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6호 [루게 제23068호] 주제99 (2010)년 4월 26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586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586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건군절을 뜻깊게 맞고있는 군부대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세차게 펄럭이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천만군민의 수명결사용위의 맹세가 담겨진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도착하실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며 줄지어 늘어진 군인들은 근 80성상의 장구한 기간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백전백승의 역사를 수놓아온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찬 전투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대를 이어 수명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끝없는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군부대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충족탄!》, 《결사용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맑고 푸른 4월의 창공에 메아리쳐갔다.

걱정의 환호를 터치는 군인들은 아버지수령님의 군건설업적과 선군혁명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장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건군절을 맞아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 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훈으로 빛나는 부대의 자랑찬 행로를 보여주는 승리의 기록들을 보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 부대는 가렬한 전쟁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운 력사있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부대에서 배출된 수많은 영웅들의 위훈을 일일이 헤아려 보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친 이들이야말로 견결한 혁명가, 우리 당의 참된 밑뿌리였다고 하시면서 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모든 군인들이 조국이 기억

하고 인민이 추억하는 세 세기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투기술기재들을 돌아보신 후 부대의 작전지휘실과 군사연구실들에 들리시어 훈련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군사연구실들을 훌륭히 꾸리고 군사훈련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높은 작전지휘 능력과 전투기술을 소유한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건군절경축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건군절경축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경축공연을 보게 된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하여 관람자들의 가슴속에서는 세찬 격정의 파도가 소용돌이치고있었다.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주체의 혈통을 뜻깊이 이어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쌓아올린 경애하는 장군님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관람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을 맞아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보안부장인 주상성 동지를 비롯한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인 최태복 동지, 김기남 동지, 부장들이인 김경희 동지, 장성택 동지, 김영일 동지, 김양건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의 일군들이 음악회를 함께 보았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초명은 수령님께서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남성합창 《백두산 바람 분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동지애의 노래》,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아무도 몰라》, 《북두칠성은 그리움의 별》,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대 사진사 왔네》,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남성합창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 하리라》,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관현악과 남성합창 《눈이 내린다》, 남성합창 《승리의 길》, 설화와 혼성합창 《우리의 행군길》, 《승리의 열병식》, 여성4중창과 혼성합창 《번영하라 조국이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선군조선의 전투적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찬 로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백철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함성인양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대한 령장들의 선군명도따라 온갖 력사의 도전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 하여온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으며 사회주의보루, 혁명의 보루로 위용떨치는 주체의 우리 조국을 영원히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강성대국승리의 명마루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음악회는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아버지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관람자들의 흠모의 분출로 하여 장내는 총성의 대하마냥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이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고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선군시대 나팔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혁명적인 예술 활동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혁명총진군으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8돛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586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군인회관을 비롯한 문화교양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업진행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상문화교양시설들을 군인들의 특성에 맞게 잘 꾸리고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심도있게 진행하고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는데 대해 기뻐하시면서 사상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부대는 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받들고 모든 군사정치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설계하고 진행하는 본보기 부대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비약하는 그들의 진취적인 투쟁기풍을 높이 평가하시고 최고사령관의 특별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군부대 전체 장병들은 뜻깊은 견군절에 친히 부대에 찾아오시여 전사들과 함께 명절의 하루를 보내시며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모두가 생세, 방패가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 조국방선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에 즈음하여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에 즈음하여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은 군중의 물결이 건군절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으로 끝없이 흘렀다.

수도 평양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꽃바구니진정풍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적은 영원불멸하리라!》 등

의 글발들이 띄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평도로 나라의 자주권 수호와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군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리러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도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어버이수령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려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군건설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1호

주제99 (2010)년 4월 25일

림창실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창조적능력과 열정을 발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수많은 형상공헌함으로써 주체예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기여한 조선인민군협주단 성악배우 림창실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양

위대한 령장을 혁명무력의 진두에 높이 모신 조선의 영광

백승의 력사, 불패의 전통 만대에 빛내리

어느덧 근 80년이 되었다. 저 멀리 백두밀림에서 자기의 탄생 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장구한 로정을 백승의 력사로 찬란히 수놓아온 영웅적조선인민군.

뜻깊은 건군절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패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주체의 건군위업을 빛나게 강화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건군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위하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신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강력한 혁명무력을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혁명군대의 불패의 위력도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과학성에 달려있다.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온 근 80년성, 백승의 력사와 불패의 전통으로 빛나는 이 성스러운 로정은 인민의 비길데 없는 행복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는데 있다는것을 실증하고 우리 당의 독창적인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한 영광스러운 행로이다.

혁명의 길에 나선 첫 시기에 벌써 무력건설을 혁명의 근본문제에 내세우고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원칙을 제시하신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가 천만인민의 가슴을 뚫고 나뉘었다.

총대위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

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변영도 있다! 이것이 10대의 시절에 발돋움까지 무장한 일제와의 전면대결을 선언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사상을 천명하신 우리 수령님의 가슴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신념이고 의지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지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이 깃들어있는것은 무장투쟁에 관한 사상이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일제의 가혹한 총검질에서 신음하는 겨레의 모습을 뼈저리게 체험하시며 뜻깊은 철리도, 《E. C》의 강령에 구현하신것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자면 자기만의 권총이 있어야 한다는것이였다.

바로 그러한 신념과 의지를 안고시고 력사적인 건군위업을 수행하는 길에 용약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

무장투쟁을 준비하시던 날날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무력의 불꽃을 축적하시기 위하여 생사를 같이할 동지들을 찾아 걸으신 험난한 길은 몇몇몇 만리였으며 무장투쟁의 방식을 끊임없이 모색하시며 기용하신 사색의 낮과 밤은 그 얼마였는가.

상비적인 혁명무력의 창건을 구상하시면서도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파도적인 정치 및 반군사조직을 먼저 내오신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선견지명에는 또 일이나 선군혁명의 의지가 힘겹게 맥박치고있었던가.

마침내 우리 민족이 그처럼 목마르게 바라고바라던 주체적인 혁명무력이 탄생하는 날이 밝아왔다.

이것 못할 주제 21 (1932)년 4월 25일에 진행된 혁명무력창건의 의의는 요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손을 높이 추켜드시고 일제와의 결사항전을 호소하시던 백두산천년장군인 위대한 김일성동지

의 그 불멸할 모습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지금도 조용히 귀 기울이면 우리 혁명무력의 탄생은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백두산천년장군을 우러러 열렬칭년루사들이 목청껏 리치던 그날의 만세소리가 메아리쳐오는것만 같아 격정을 금할수 없다.

주체적인 혁명무력의 창건, 이것은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전환적극면을 마련하고 혁명무력건설의 참다운 시련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었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무장투쟁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결정체였다.

결출한 위인의 령도를 받는 주체적인 혁명무력이 창건됨으로써 선군혁명의 강력한 주력군이 탄생하고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과 당장전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대한 길이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혁명무력은 총대혁명의 첫 시기부터 백승을 아로새기었다. 새 조국건설시기 그처럼 복잡한 속에서도 군력강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우리 혁명무력을 정규무력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대한 사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신 우리 수령님의 령도는 또 얼마나 비범한가.

전후에는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건군설에서 내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가 우리 당의 혁명전투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하고 계승하는 데서 선봉대가 되도록 하시였으며 자위의 군사로서와 《일당백》으로 자의 주체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더욱 빛나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선군혁명무력의 길에 계시며 총대승리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이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나고있다.

우리 혁명군대의 백승의 력사와 불패의 전통은 강철의 선군혁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오늘 더욱 즐거우게 이어지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무력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군설업적을 강조하시며 더듬어보시며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건군설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혁명무력을 백전백승하는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것입니다.』

국력으로 민족적자부심도 총대에서 나오오고 군대가 강해야 민족이 부흥하고 나라도 융성번영할수 있다고 하시며 군력강화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백두산의 넘어 어려웠던 총대를 역세게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그철의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주제 49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군위 서을 류경수제 105명포사단에 거룩한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

1970년대말 어느해 10월에는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전투와 선군혁명의 력사적위업을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체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더욱 빛나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에는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하시고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선군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및 군사적위력은 얼마나 천백배로 다져졌는가.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은 총대를 앞세우고 당도나라도 창건하시고 혁명군대에 의하여 사회주의로 건설하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이다.

우리 인민군대가 선군시대의 더불어 강력한 자위적전쟁억제력을 가진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지난 세기의 년대들을 창조와 진설로 빛낸 우리 인민이 오늘도 날에날마다 대적국, 대비악의 승진고를 울리며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치달아오르고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무력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전진길에 새겨진 위대한 선군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 1990년대의 사회주의수호전에도 편편전승을 떨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대진에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고있는 우리의 혁명적주력.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김일성동지는 무적필승의 선군조선으로 길이 빛날것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중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동철

찬란한 미래, 최후승리는 언제나 선군조선의것이라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백두의 선군령장을 혁명무력의 수위에 높이 모시였기에 내 나라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를것이라는 끝없는 락관과 궁지까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서 세차게 뚫어 번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만단을 헤치며 승리에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며 배짱이다. 신념과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배짱이 없으면 온갖 풍파를 헤쳐나가야 하는 혁명을 할수 없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찍이 백두밀림에서 추켜드신고 높이 휘날려오신 선군의 기치를 우리 장군님께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변함없이 고수해가시면서 확신할수 있는 철의 진리이다.

하늘도 머리카락 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배짱을 지니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세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혁명적공세로부터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에 이끌어나가시는 천출명장 김정일동지, 언젠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에 떨치나신 천만군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중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온 나라 인민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시었고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되는 신념과 배짱을 그대로 닦는다면 우리는 적들의 그 어떤 도전도 짓부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주체혁명위업도 완성할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들의 말쑥을 넘어 세겨는 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 제일배짱이신 어버이수령님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도 승리해 승리를 이룩해가는 날다른 희열이 넘쳐흐르고있다.

그렇다,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원수들이 총을 내대면 대표를 내대며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는것이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여기에 우리 조국의 현실을 두고 유럽의 한 인사가 《21세기와 주체조선의 존엄》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였다.

『오늘 공화국이 그 어떤 침략자도 타복할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되겠다고 궁지높이 말하는데는 김정일령도자의 특출한 위인상과 신묘한 지략, 탁월한 명군술, 위대한 정치실력이 놓여있다.』

온 세상이 우러러 칭송하는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을 닦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자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김성남

뜻깊은 건군절에도 병사들과 함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령도를 받는 사상과 신념의 장군이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대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펼친 선군정치에 의하여 혁명무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조국의 방선이 굳건히 다져졌으며 혁명군대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습시다.』

어느덧 건군절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전선의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감격에 목매어 만세를 부르는 군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면서 모두들 잘 있었는가, 명절을 맞는 동무들을 축하한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명절을 맞을 때면

수령님생각이 더 난다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려웠는 사적건물을 돌이켜보시였다.

이러 오레갈만에 만났는데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병사들을 한뼘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촬영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기백에 넘치는 체육경기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공중국가합창단의 공연도 관람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고 명절이었다.

군인들은 또다시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마련해가지고 오신 명절음식상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있었다.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이 나라 어머니들의 따뜻한 정그대로 병사들의 식성까지 헤아려 명절음식을 마련해가지고오신 우리 장군님의

다시하고 웅성깊으신 어버이사람에 병사들은 목이 메임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뜨거운 눈물을 머금으며 수저를 들지 못하는 군인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전방초소에서 수고하는 동무들을 위해 최고사령관이 차린 상이내어서 많이들 드라고, 그래야 나의 마음도 기쁘게 이어나가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고향의 친어머니처럼 음식과그릇을 가까이하여주시며 명절날인데 많이 드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감격과 흥분, 무상의 행복과 기쁨속에서 뜻깊고 즐거운 식사시간이 흘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웃음꽃을 피우는 군인들의 모습은 그대로 최고사령관동지를 친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군대의 행복한 대가정의 확증이었다.

본사기자 김준혁

오후시간도 피그나 흘렸으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병사들속에서 계시면서 뜨거운 열육의 정을 나누시였다.

떠나셔야 할 때가 되어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선차에 오르지 못하고 군인들의 손을 다스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초소를 동무들에게 맡기고 간다고, 모두 건강하여 초소를 튼튼히 지키기 바란다 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어찌 그날뿐이랴. 뜻깊은 건군절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감동깊이 전해지고있는것인가.

정녕 선군을 백승의 보금으로 틀어쥐시고 강성대국건설업적을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건군절날 병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다.

본사기자 김준혁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군대로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자로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어 총대의 위력은 총련 병사의 신념에 있다는 철의 진리를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 주시였다.

그날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전투력강화와 관련한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의 사상교양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부대에서는 군인교양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하여 놓고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심도있게 진행하면서 모든 군인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었다. 부대에서는 하나의 직관물을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투철한 수령사상위정

치하시였다.

군인회관 복도에 게시된 《모든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자로》라는 제목의 교양관을 보여주신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여세를 준비할데 대한 교양장르의 내용이 좋다고 하시면서 신념교양을 잘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지휘관의 안내를 받으시며 부대의 훈련기재와 시설들을 돌아보신 다음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적필승의 기상이 넘쳐나는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보시고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만면에 짓부

서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일당백의 용사들로 준비되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의 지휘관, 병사들은 선군의 기치가 사나운 풍파를 헤치고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승리의 한걸음 걸어오는 영광의 나날에 백전백승의 장수함을 키워왔다. 인민군대의 이 위력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훈련으로 발을 밝히고 새날을 맞는 군인들의 훈련열의는 대단히 높다고, 무적의 군력을 다지는 기본방도, 일당백의 기본열의는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이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김철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란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다르 에스 살람

란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자카야 음리쇼 키크웨레 각하

나는 란자니아련합공화국장전 46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 리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민족적단합과 경제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4월 23일 평양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

화환, 꽃바구니 진정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 진정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 꽃바구니 진정

주조 무관단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 화환과 꽃바구니 진정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년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25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 화환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혁명렬사릉과 기념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무관단의 명의로 된 화환과 꽃바구니가 혁명렬사릉 화환

진정대와 기념탑 중심주제 《승리》상상에 진정되었다. 화환과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으라!》 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무관단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생애 바친 항일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점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과 당당위원장, 당, 무력, 정전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 시내 근로자들이 화환과

각지에 있는 려사들의 동상과 인민군렬사탑, 려사모듬에

화환 진정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년에 즈음하여 25일 각지에 있는 려사들의 동상과 인민군렬사탑, 려사모듬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화환진정에는 지방당, 정전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

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나라의 통일번영을 위하여 고귀한 한생을 바친 려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화환과 꽃바구니

그들은 또한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점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에 즈음하여

조국의 방선초소들에 꽃피는 군민단결의 화폭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인민대표단 조선인민군부대들을 방문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으며 인민대표단들이 조선인민군부대들을 방문하였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명도따라 강성대국건설전선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을 무적의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가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인민의 대표들과 함께 당창건 65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건군절을 기념하는 군인들의 환희로 설레이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데는 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자!》 등의 구호들이 날아오르는 인민군부대들은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인민대표단들이 도착하자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인민군부대들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열렬적인 박수속에 은정어린 선물을 인민대표단 부대들에게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장병들은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결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신 희세의 천출명장 김일성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선군혁명의 전위투사, 육전결사대로 든든히 준비해갈 철심의 맹세를 다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민일치는 군대와 인민이 한몸이 되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도와주는 기쁨입니다.》

수령우위의 제일결사대,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영예를 떨쳐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사들을 열렬히 축하하는 대표단성원들, 고향의 부모를 만난듯 기쁨에 넘친 군인들로 하여 인민군부대들은 더없이 흥성거렸다.

대표단성원들은 군인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현지지도강군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동원력으로 부른 령도의 호소에 피땀을 심장으로 화답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경제각종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들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후방초소를 둘러싸고 있는 인민군부대들은 더없이 흥성거렸다.

대표단성원들은 군인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현지지도강군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동원력으로 부른 령도의 호소에 피땀을 심장으로 화답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경제각종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들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후방초소를 둘러싸고 있는 인민군부대들은 더없이 흥성거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장병들은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으로 수놓아가고있는 군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체육경기 등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경축하였다.

주체적인 해상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가는 조선인민군 김명철소속부대에서도 인민대표단의 방문으로 기쁨이 넘쳐났다.

부대를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근무수행과 훈련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해병들에게 후방인민들의 전투적인사를 전하였다.

그들은 이곳 군인들과 함께 영웅렬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을 진정하고 부대의 어려움 등을 돌아보았으며 모범적인 군인들과의 상봉모임을 가졌다.

인민대표단성원들과 병사들이 함께 부르는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장》,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리라》 등의 노래는 원수들이 우리의 땅을 한치라도 침범한다면 당대에 격멸소탕할 군민의 열적 의지를 조국의 바다우로 펼쳤을 때에 이르러졌다.

조선인민군 김명철소속부대를 방문한 인민대표단은 비행사들과 함께 건군절을 의의있게 보내었다.

대표단성원들은 부대를 찾으며 공군무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비행사들에게 크나큰 존경을 베풀어 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사적에 대한 해설을 듣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퍼있는 군인회관과 병실, 식당 등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비행사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며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백두산천출위인의 고매한 품도와 하늘의 결사대로 용맹떨쳐가는 군인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육전결사대를 깊이 체득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김명철소속부대 모든 비행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복속까지 싸우며 조국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 줄것을 부탁하였다.

전체 인민군인들은 인민의 믿음어린 당부름 명사라고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철옹성같이 수호하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0돛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오종률 7면대정조영위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최정에 혁명명도의 기상을 넘김없이 펼쳐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으며 진행된 인민대표단들의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방문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조선의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도 높이 김일성민족의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인 천만군민이 선군의 위력을 떨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백두산혁명강군이 창건된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로 설레이었다.

당창건기념탑, 4.25 문화회관광장을 비롯한 수도 평양의 무도회장들에 《김일성대원수 무도회》의 노래들이 울려 퍼져 무도회 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주체적인 혁명무력 건설로선을 제시하고 진정한

각지에서 진행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인 천만군민이 선군의 위력을 떨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백두산혁명강군이 창건된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로 설레이었다.

당창건기념탑, 4.25 문화회관광장을 비롯한 수도 평양의 무도회장들에 《김일성대원수 무도회》의 노래들이 울려 퍼져 무도회 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주체적인 혁명무력 건설로선을 제시하고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억세게 싸워갈 열렬청춘들의 맹세의 불꽃인양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조선에서 만나자》, 《나의青春 조국에 바쳐가라》 등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도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청년학생들은 《그이의 리상》, 《돌파하라 최철만》,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의 노래선율에 맞추어 박력있는 춤을 추며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의 열광마디에는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에 특기할 업적을 쌓으시고 불면불휴의 선군명도도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시며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 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어

려있었다.

《돌파하라 최철만》,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의 노래선율에 맞추어 박력있는 춤을 추며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의 열광마디에는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에 특기할 업적을 쌓으시고 불면불휴의 선군명도도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시며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 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어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 무도회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장맛에 승배인 마음의 향기

화대군장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이민생활대거주의 추진방향을 간직하고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

알곡증산의 예비는 두벌농사에 있다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독자의 편지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우리 인민보안원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재일분조선인민대표단이 떠나자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스웨리에 스톡홀름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 도착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참가자들의 생생의욕과 열의를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참가자들의 생생의욕과 열의를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4.25 문화회관광장에서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돛을 맞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을 진두에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창건일을 맞이한 녀성들의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앞장에서 꽃피워갈 철석의 의지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의 투쟁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에서 날아나타 위용을 창조하고 있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평양속도》가 창조되었던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과 기백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건설장마당에서 자랑스러운 위훈을 수놓아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경제건설에서도 앞장에 서서 로력적위용을 떨치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 이리든 곳마다에서 기적들을 창조하고 혁신을 일으키면서 온 나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과 생산적양양으로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심장마당에는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반드시 말

은 살림집건설을 질적으로 완공할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 있다. 이들은 수도건설에서도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할 불같은 일념을 안고 자기들이 맡은 수시들의 다중살림집공사를 동시에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홉만 살림집공사를 단번에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사량은 방대하다. 하지만 이들은 불가능도 가능성도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대고조시대의 자랑스러운 위훈의 창조자가 될 일념을 안고 불철을 들어와 건설장의 승결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군인건설자들의 높은 열의에 맞게 전판식, 최용남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현장을 돌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일하며, 화석식정지시업을 실시하며 벌리는 한편 대로의 기수가 되어 걸린 고리를 앞장에서 풀어나가고 있다. 온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속에 이미 여러대의 혼합기와 쇠바늘을 비롯한 설비,

자재들이 적지 않게 보충되었지만 공사지휘부의 면밀한 작전에 따라 부대, 구부대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졌다. 결과 1만여점의 기공구와 많은 공사자재들이 확보되었으며 수천㎡에 달하는 콘크리트기기를 진행하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맡은 공사를 본때있게 추진하기 위해 건설장마당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있다.

지난 겨울철에 강추위로 하여 공사를 보강하기 어려운 정황이 조성되었을 때였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공사를 현수적으로 추진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파격한 공격전을 벌였다. 이들은 현장주변의 강기슭에서 골재천천을 찾아내고 얼어붙은 땅을 파내면서 많은 량의 골재 확보함으로써 공사를 지장없이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모두가 돌격전의 기수가 될 결의안고 펼쳐나선 김원일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하고 있는 헌신적인 투쟁기풍은 온 부대의 자랑스러운 투쟁으로 되고 있다. 이들은 현장주변에서 많은 량의 골재 확보를 위하여 자재로 회폐제작을 위한 통나무도 적지 않게 마련하여 콘크리트기기를 높임으로써 1단계 사회주의 경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혁신의 불길은 김원철, 허길수소속부대들이 전개한 살림집 건설에서도 새처럼 타오르고 있다. 김원철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어려운 기초공사조건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극복하며 이어 벽체공구리트리기에서도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공사장장을 부끄럽게 하는 자랑을 떨치고 있다. 허길수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며 기세등계 내달리고 있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

원하여 자재로 마련한 설비들의 가동률도 높여 놓는 한편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여야 많은 공사를 손색없이 해체하고 있다.

살림집건설장을 자기들이 지켜선 전초로 여기고 오늘의 총진군건설에 혁혁한 위훈을 세워가는 군인건설자들이 어찌 이렇습니까. 최원철의 군인건설자들처럼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장하자!》는 구호를 전투장에 내붙이고 골재무지에 자그마한 흙성분이라도 섞일새라 정성을 기울이며 공사의 질을 높이고 있는 군인건설자들과 공사의 연속적인 추진을 위해 날마다 빈틈없는 작전을 세워가는 홍영일, 신국섭동무를 비롯한 부대의 지휘관들...

신군사대의 대고조진군에 새로운 위훈을 세우는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기풍에 의하여 가까운 앞날에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은 훌륭히 완공되게 될 것이다.

건설자들의 절포장에 큰 힘입어

투쟁과 혁신으로 날이 새고 저무는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 위훈의 자욱을 두어놓는 단원들 중에는 조선인민내무군 하정길소속부대도 있다. 부대가 맡은 여러 동의 다중살림집건설장 그 어디서나 당창건 65돐을 높은 공사장파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격의 기상이 세차게 나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대 한 확신을 가지고 부단한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맞받아 나가야 합니다.》

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선 요즘 부대가 맡은 살림집건설에서는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 있다. 모든 일을 주도면밀하게 작

업하고 나서는 지휘관들과 마을의 당계를 바비사 조이 낮에 하는 군인건설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건설장에서 융점의 불

꽃은 씩없이 날리고 휘몰려 작업도 불이 번쩍 나게 진행되고 있다.

부대가 맡은 공사현장을 돌아보면 건설물의 겹도는 수층에서 보장된다것을 알수 있다.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천연안반을 들어내고 기초를 견고하게 하여 모든 살림집의 기초벽들은 하나같이 미끈하게 완성되었다.

사실 공사초기에 여러 동의 살림집건설을 맡은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에게 있어서 현장조건은 대단히 불리하였다. 건설장주변은 주택지구로 되어 있어 암반이 나와도 발파를 할수 없었고 철근공사와 골재적치장을 성실 할 장소를 선택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김남일, 최용철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천연안반의 의지로 제기되는 애로를 극복하고 짧은 기간에 여러 동의 팔조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이들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그러명 용이 큰 목표를 내세운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두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수도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하려는 일념이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었다.

지휘관들의 빈틈없는 작전에 따라 김영철, 리성섭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맡은 공사에서 비약의 열풍을 일으키며 기초공사의 돌파구를 파격히 열어나갔다. 발파를 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 천연안반을 가내면서 기초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체한 군인건설자들은 총막공구리트리기를 비롯한 골조작업을 설계의 요구대로 자그마한 편차도 없이는 질적수준에서 다그치는 자랑을 떨치고 있다.

이들은 살림집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기 단위가 맡은 구획도로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체하고 건설장지리로 알뜰하게 하여 사람들로부러 혁명군대의 일본새가 다르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낀다

조선인민군 최철진소속부대에서

조선인민군 최철진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맡은 살림집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을 가지고 달랠때는 무기질 난관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자기들이 맡은 여러 동의 살림집기초공구리트리기를 전부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들을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사실적을 올리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건설장에 첫발을 박은 때로부터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난관을 박차면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

성과를 높이고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시공단위별로 골재확보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던 때였다. 지휘관들이 모여앉아 골재확보를 위한 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한가지 안이 나왔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고장난 파쇄기를 수리하여 골재생산에 이용하자라는 것이었다.

가능성은 희박했으나 불가능을 모르는 신념을 지닌 부대지휘관들은 설비를 뒤살릴 방도를 찾고 필요한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마련하였다. 이렇게 골재생산의 돌파구가 열렸으나 엄청난 추위로 강물이 얼어붙어 자갈생산은 또다시 중단되었었다. 그때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유리천을 성파적으로 마련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골재장에 달려나간 최명국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얼어붙은 땅속에서 돌을 채취하여 파쇄기의 동을을 기운차

게 올리였다. 이렇게 기계수단을 리용하여 골재를 생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 결과 부대에서는 자갈생산에 들던 많은 노력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조성진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기초벽공구리트리기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공사기일을 훨씬 줄이는 자랑을 떨치였다. 더 요구되는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장에서 수백리 떨어진 산반으로 달려가 많은 통나무를 마련한 군인건설자들과 무동력권양기를 비롯한 능률높은 설비를 창안제작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 공적들을 높이 평가한 지휘관들...

참으로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이룩한 투쟁성과를 다 그려보면 끝이 없다. 맡은 살림집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대고조격전의 제일기수가 될 결의의 불이 공사실적을 더욱 높이고 있다.

단상기

얼마전 군인건설자들이 일하는 살림집건설장을 찾은 하나는 공사장의 승결을 그대로 전하듯 곳곳에 세워진 사회주의 경쟁도표와 속도판들을 주의깊게 보며 류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속도판들의 내용에서 특별히 하나의 눈길을 끈것은 모든 건설물을 만수대거리의 살림집처럼 손색없이 일떠세우자는 공목적인 문구였다. 그 문구를 보는 나에게는 하나의 승연한 화폭이 뜨겁게 안겨왔다.

지난해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명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만수대거리에 새로 건설된 주택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수대거리에 일떠세우는 새로운 주택들을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가 그대로 구현된 최상급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라고 하시면서 만

중

수대거리의 살림집들이야말로 강성대국에서 우리 인민들모두가 살게 될 살림집건설의 본보기로, 표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창조된 살림집건설의 훌륭한 기준이 있어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은 맡은 살림집건설에서 날아나타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며 새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해나가고있는 것이다.

비약의 열풍안고 뚫어번지는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며 나는 확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만수대거리의 주택들과 같은 살림집건설의 본보기, 정확한 기준이 있어 당이 펼친 거창하고 통이 큰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이 땅우에 반드시 현실로 꽃피어나고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리게 되리라는것을.

단상기

수대거리의 살림집들이야말로 강성대국에서 우리 인민들모두가 살게 될 살림집건설의 본보기로, 표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창조된 살림집건설의 훌륭한 기준이 있어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은 맡은 살림집건설에서 날아나타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며 새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해나가고있는 것이다.

비약의 열풍안고 뚫어번지는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며 나는 확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만수대거리의 주택들과 같은 살림집건설의 본보기, 정확한 기준이 있어 당이 펼친 거창하고 통이 큰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이 땅우에 반드시 현실로 꽃피어나고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리게 되리라는것을.

중

수대거리의 살림집들이야말로 강성대국에서 우리 인민들모두가 살게 될 살림집건설의 본보기로, 표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창조된 살림집건설의 훌륭한 기준이 있어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은 맡은 살림집건설에서 날아나타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며 새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해나가고있는 것이다.

비약의 열풍안고 뚫어번지는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며 나는 확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만수대거리의 주택들과 같은 살림집건설의 본보기, 정확한 기준이 있어 당이 펼친 거창하고 통이 큰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이 땅우에 반드시 현실로 꽃피어나고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리게 되리라는것을.

중

수대거리의 살림집들이야말로 강성대국에서 우리 인민들모두가 살게 될 살림집건설의 본보기로, 표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창조된 살림집건설의 훌륭한 기준이 있어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은 맡은 살림집건설에서 날아나타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며 새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해나가고있는 것이다.

비약의 열풍안고 뚫어번지는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며 나는 확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만수대거리의 주택들과 같은 살림집건설의 본보기, 정확한 기준이 있어 당이 펼친 거창하고 통이 큰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이 땅우에 반드시 현실로 꽃피어나고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리게 되리라는것을.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친다. 조선인민군 정봉남소속부대에서

조선인민군 앞선 리선익소속부대

조선인민군 앞선 리선익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살림집건설에 앞선 공법들을 련이 받아들이며 공사를 적극 다그치고 있다.

조건이 불리한 겨울철에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공사를 다그친 이들은 총막공구리트리기를 시작할 때에

공법들을 받아들여

도 창조적인 사색을 기울여 받침대를 쓰지 않는 공법을 대담하게 도입하였다. 이들은 해당 단위들의 긴밀한 계급에 기초하여 골재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받침대가 없이 총막시공을 성파적으로 보장하는 혁신을 일으

혁신의 승결

하당-서포지구 살림집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이 살림집건설을 위해 전개한 제식장에서 대공판과를 련이어 진행하여 자갈생산량을 높이고 있다. 제식장을 타고있는 조선인민군 양동원, 김경삼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자갈생산에 다그치는 동시에 발파를 위한 경쟁장기

높은 채석장

에서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김경삼소속부대에서는 가설된 물공사에 앞서 파쇄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재로 정비보수하고 많은 량의 자갈을 생산하는 동시에 경쟁장기들을 위해 전진정사경매달기트럼에 받아들이는

건설장에 꽃피는 군민의 정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서는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미풍이 활짝 꽃피고 있다.

공사파정에 일목일심이 많기로 소문난 조선인민군 리근백소속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현장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세대들의 울타리를 번듯하게 정리해주었다.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형제산구역 중앙동사무소의 김복길, 조옥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동무들은 수

의하여 살림집건설에는 지금 골조공사에 쓰일 자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천케의 장갑을 비롯한 현호차들을 마련하여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내준데 이어 여러차례에 걸쳐 군인건설자들의 일손을 돕는 아름다운 조성을 발휘하였다.

인민들의 성의있는 원호에 고무된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공격적인 불길에 더욱 높이되고 있다.

글 및 사진 현진보도반

의하여 살림집건설에는 지금 골조공사에 쓰일 자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천케의 장갑을 비롯한 현호차들을 마련하여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내준데 이어 여러차례에 걸쳐 군인건설자들의 일손을 돕는 아름다운 조성을 발휘하였다.

인민들의 성의있는 원호에 고무된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공격적인 불길에 더욱 높이되고 있다.

글 및 사진 현진보도반

과학기술중시는 기적창조의 지름길

개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배심종계 일어나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중시방침을 잘 알아두고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실현투쟁을 통하여 새진 진리는 사람들보다 큰 승리에로 추동하는 법이다.

당이 제시한 올해의 석탄생산계획을 어떻게 높이 실현되는 이들의 전진불발의 의지와 배려는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단원적투쟁을 해나가는 과정에 얻은 귀중한 경험에 뿌리를 두고있다.

한편 기업소에서 《보배》, 《레간동이》들로 불리우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도록 한것이다.

평시에 기업소의 기술발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왔을 뿐 아니라 석탄생산과라는 데 이바지할 어 한 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확고히 소유한 그는 탄광들이 나가 기술자, 기능공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기업소의 전반실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그들의 창조적의욕을 한껏 북돋아주었다. 그리고 련합기업소에서의 모든 당조직들이 해당 단위의 기술적잠재력을 남김없이 발동하기 위한대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이것은 비록 자그마한 싹에 불과한것이라고 하여도 소중히 여기고 전투목표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실현하도록 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서 긍정적인 단원들의 모습이 적극 일반화하고 뒤떨어지고있는 단원들의 사업은 제때에 바로잡아나갔다.

련합기업소적으로 석탄생산계획의 적지 않은 몫을 맡고있는 한 탄광발전조직에서 기술혁신전투목표를 잘 세우도록 이끌어준 실례가 그것을 말해 주었다.

어느날 당책임일군은 탄광에 지도자임을 내려왔던 당위원회의 해당 부서일군으로부터 그곳 일군들이 생산과정을 월,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할 뚜렷한 목표를 아직 갖지 못해 안타까워하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순간 책임일군은 전반기 검토하면서 보았던 그 단위의 기술혁신계획의목표가 떠돌았다. 다른 단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논지 못한 결의목표였던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그곳 일군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데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깨닫지 못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 주고있었다.

(파괴와 기술, 생산이 일체화되고있는 오늘 과학기술에 의거할 수 없는 조건에 발목을 잡혀서 어떤 비약도 이룩할수 없다.)

책임일군은 당위원회의 해당 일군들을 지체없이 현지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곳 당조직과의 긴밀한 련계를 기술자, 기능공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면서 새로운 기술혁신과제들을 더 찾아내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것은 일군들에게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지름길을 세워주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생산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는 기술경제적담보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난해전투를 승산있게 내밀수 있는 당결정을 채택하게 되었었다.

실행관망에서 끝난탄광에 쌍구멍추적식집중장악발파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발파법과

가스중화, 막대동발, 천공기 등을 받아들일때 대한 문제, 개천탄광에서 고압프로폭송 자동변을 설계제작하기 전진정사경매달기트럼에 받아들이는 문제...

자재의 기술적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게 하는 당결정을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데서 자기들의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하였으며 날아나타 피타

가수중화, 막대동발, 천공기 등을 받아들일때 대한 문제, 개천탄광에서 고압프로폭송 자동변을 설계제작하기 전진정사경매달기트럼에 받아들이는 문제...

자재의 기술적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게 하는 당결정을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데서 자기들의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하였으며 날아나타 피타

가수중화, 막대동발, 천공기 등을 받아들일때 대한 문제, 개천탄광에서 고압프로폭송 자동변을 설계제작하기 전진정사경매달기트럼에 받아들이는 문제...

자재의 기술적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게 하는 당결정을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데서 자기들의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하였으며 날아나타 피타

가수중화, 막대동발, 천공기 등을 받아들일때 대한 문제, 개천탄광에서 고압프로폭송 자동변을 설계제작하기 전진정사경매달기트럼에 받아들이는 문제...

자재의 기술적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게 하는 당결정을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데서 자기들의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하였으며 날아나타 피타

가수중화, 막대동발, 천공기 등을 받아들일때 대한 문제, 개천탄광에서 고압프로폭송 자동변을 설계제작하기 전진정사경매달기트럼에 받아들이는 문제...

자재의 기술적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게 하는 당결정을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데서 자기들의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하였으며 날아나타 피타

올은 정책적안목과 지름길

올해공공사업과관련된을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났을 때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드높은 신심과 열정이 한껏 차려졌다.

올해전투의 승리를 결정하는 단원적투쟁이 그야말로 뚜렷하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워졌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에게는 지난해의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전례없이 높은 석탄생산목표를 내세웠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해낼수 있었는가고 하면서 걱정부터 앞세우고있었다.

기업소의 생산능력을 고려해볼 때 너무도 엄청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올은 정책적안목과 지름길

올해공공사업과관련된을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났을 때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드높은 신심과 열정이 한껏 차려졌다.

올해전투의 승리를 결정하는 단원적투쟁이 그야말로 뚜렷하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워졌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에게는 지난해의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전례없이 높은 석탄생산목표를 내세웠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해낼수 있었는가고 하면서 걱정부터 앞세우고있었다.

기업소의 생산능력을 고려해볼 때 너무도 엄청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올은 정책적안목과 지름길

올해공공사업과관련된을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났을 때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드높은 신심과 열정이 한껏 차려졌다.

올해전투의 승리를 결정하는 단원적투쟁이 그야말로 뚜렷하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워졌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에게는 지난해의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전례없이 높은 석탄생산목표를 내세웠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해낼수 있었는가고 하면서 걱정부터 앞세우고있었다.

기업소의 생산능력을 고려해볼 때 너무도 엄청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올은 정책적안목과 지름길

올해공공사업과관련된을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났을 때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드높은 신심과 열정이 한껏 차려졌다.

올해전투의 승리를 결정하는 단원적투쟁이 그야말로 뚜렷하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워졌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에게는 지난해의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전례없이 높은 석탄생산목표를 내세웠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해낼수 있었는가고 하면서 걱정부터 앞세우고있었다.

기업소의 생산능력을 고려해볼 때 너무도 엄청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올은 정책적안목과 지름길

올해공공사업과관련된을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났을 때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드높은 신심과 열정이 한껏 차려졌다.

올해전투의 승리를 결정하는 단원적투쟁이 그야말로 뚜렷하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워졌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에게는 지난해의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전례없이 높은 석탄생산목표를 내세웠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해낼수 있었는가고 하면서 걱정부터 앞세우고있었다.

기업소의 생산능력을 고려해볼 때 너무도 엄청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올은 정책적안목과 지름길

올해공공사업과관련된을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났을 때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드높은 신심과 열정이 한껏 차려졌다.

올해전투의 승리를 결정하는 단원적투쟁이 그야말로 뚜렷하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워졌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에게는 지난해의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전례없이 높은 석탄생산목표를 내세웠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해낼수 있었는가고 하면서 걱정부터 앞세우고있었다.

기업소의 생산능력을 고려해볼 때 너무도 엄청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올은 정책적안목과 지름길

올해공공사업과관련된을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났을 때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드높은 신심과 열정이 한껏 차려졌다.

올해전투의 승리를 결정하는 단원적투쟁이 그야말로 뚜렷하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워졌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에게는 지난해의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전례없이 높은 석탄생산목표를 내세웠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해낼수 있었는가고 하면서 걱정부터 앞세우고있었다.

기업소의 생산능력을 고려해볼 때 너무도 엄청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올은 정책적안목과 지름길

올해공공사업과관련된을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났을 때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드높은 신심과 열정이 한껏 차려졌다.

올해전투의 승리를 결정하는 단원적투쟁이 그야말로 뚜렷하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워졌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에게는 지난해의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전례없이 높은 석탄생산목표를 내세웠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해낼수 있었는가고 하면서 걱정부터 앞세우고있었다.

기업소의 생산능력을 고려해볼 때 너무도 엄청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